

한국의 테러환경 변화분석과 대응방향*

최진태

테러의 공격양상이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다. 세계의 테러환경도 지속적으로 변하고 있다. 한국을 둘러싼 테러양상과 테러환경역시 국제안보환경에 따라 변화하고 있고, 점진적으로 다양화되고 있다. 그러나 테러환경의 변화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부족하고, 이에 대한 논의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국제화의 진전에 따라 위험지역에 대한 방문객이 증가했으며, 대테러전쟁에 따른 국제공조의 일환으로 단행된 아프간과 이라크에 대한 파병은 아랍권에서 한국에 대한 적대감의 표출로 이어지고,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테러의 직간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기본적인 테러환경이다. 국제결혼이민자, 외국인노동자, 북한이탈주민 등의 국내 유입증가에 따라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차별 등은 사회적 갈등의 근원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자생적 테러의 잠재적 원인으로 작용하여 한국의 새로운 테러환경이 될 수도 있다. 영국 런던 지하철 테러사건과 스페인 마드리드 열차테러는 다양한 형태의 차별을 받아왔던 파키스탄과 모로코에서 이주한 부모를 둔 자국 국민에 의해 자행되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 이유는 한국과 영국 및 스페인 간에는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 국제결혼인구의 증가, 대테러전쟁 참여 등 환경적인 측면에서 공통점이 많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테러환경은 물론 앞으로 직면할 수 있는 테러 환경의 변화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대응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제어: 테러, 한국의 테러환경, 대테러전쟁, 테러대응

1.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오늘날 전 세계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그리고 국제 교류의 확대에 따라 전통적 개념의 국경이 사라지고 인적·물적 교류에 대한 제한이 거의 사라진 지구촌의 시대를 살고 있다. 국제화시대에 접어들면서 경제적 차원의 공동번영과 민주주의의 확산, 인권의 보호, 그리고 인류공동의 문제, 예를 들어

*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전문가적 견해와 예리한 지적을 통해 논문의 구성과 내용의 완성도를 높이도록 도와주신 익명의 세분 심사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후와 환경, 빈곤의 문제 해결 등을 위해 양자 혹은 다자간 협력과 국제공조가 늘어나는 등 순기능적 요소가 증가하고 있다. 반면에 국제화 과정에서 드러나는 역기능적인 요소들도 등장하고 있다. 세계 도처에서 발생하고 있는 테러는 역기능의 대표적인 예이다.

2001년 미국에서 발생한 9.11 테러는 테러의 정교화, 지능화, 과격화, 대형화라는 특징을 보여준 한 사례에 지나지 않는다. 스페인 열차테러, 영국 지하철테러 등 다양한 유형의 테러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테러가 국제사회에 던지는 파장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인류 공동의 발전,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인류 보편적 가치인 평화를 위협하는 테러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안보외교를 강화하고 다양한 대테러 정책과 전략을 통해 테러 극복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국제연합(UN) 차원에서도 테러문제는 세계안보의 중심 이슈로 확대되고 있다.

테러로부터 자유로운 지역이나 국가는 지구상에 없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그 동안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가능성은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그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그 이유는 첫째, 한국인의 해외방문 증가와 이라크·아프간 등 위험지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불가피하게 테러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둘째, 종교단체가 해외 선교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현지 사정과 문화에 대한 이해의 부족 등으로 갈등을 야기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셋째, 세계 제13대 경제대국으로 등장한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그에 상응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갈등은 물론 아프간 및 이라크에 대한 파병 등으로 인해 이슬람권 지역에서 반한 감정이 고조되면서 한국에 대한 테러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테러전쟁의 단초가 되었던 9.11 테러 이전에 국내의 테러정세는 북한에 의한 대남 테러 위협을 제외하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것으로 인식되었다. 하지만 9.11 테러 이전에도 알카에다가 한국을 테러의 대상으로 삼고 있었다는 것은 국제테러조직에 의한 국내테러로부터 안전지역이 아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실제로 알카에다는 1995년 1월에 김포공항을 이용하는 미국적 여객기 네 편을 포함한 12대의 동아시아 출발 미국행 비행기를 태평양 상공에서 동시에 폭파시킨다는 테러를 모의했으나 테러계획의 실행 이전에 발각된 바 있다¹⁾. 뿐만 아니라 알카에다는 미국의 9.11 테러와 동시에 아시아에서 미국 여객기를 납치하여 주한 미군기지와 주일 미국대사관에 돌진하는 ‘한국판 9.11’을 모의했던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다.

아울러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이슬람권 국가 출신자들의 숫자가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이들이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이슬람지하드 혹은 반미투쟁을 선동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새로운 국내 테러발생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²⁾. 테러 공격 목표가 될 수 있는 주한 미군 등 서방국가 시설이 109개소에 달하고, 다중이용시설이 전국에 산재해 있다는 점도 국내에서의 테러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유이다.(테러정보통합센터, 2009: 27)

1) 이 테러 계획은 보징카 작전(Operation Bojinka)으로 불린다. 보징카는 아랍 속어로 ‘폭발’을 의미한다. 전문가들은 동 작전이 성공했다면 4천여 명이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 실제로 2003년 이후 국제테러조직과 연루된 정황이 있어 구금되거나 추방된 외국인이 7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동아일보, 2010. 3. 22).

과거 한국의 테러 환경은 북한 혹은 북한과 연계된 국제테러조직에 의한 대남테러에 국한되는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국제화의 진진과 국제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라 한국의 테러환경도 다양화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제 교류의 확대에 따라 한국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테러환경의 실체를 분석하고, 결혼이민자의 국내 유입에 따른 다문화 가정의 증가, 그리고 북한이탈 국내 정착인의 증가, 그리고 국내 불만세력의 증가 등에 따른 잠재적 테러환경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큰 틀에서 테러대응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검토 및 연구방법

그 동안 서구에서는 테러 전반에 관한 활발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국내의 학자들도 9.11 테러 이후부터 다양한 연구결과물을 내놓기 시작했다. 특히 테러대응의 토대가 되는 테러방지법 및 대응기구, 테러현황 및 전망, 테러조직의 전략 및 전술, 대테러위기관리, 테러사례연구 등의 분야에서 단행본과 학술논문 등의 형태로 연구결과물들이 도출되었다. 뿐만 아니라 김선일 테러 사건과 분당샘물교회 사건 이후 인질납치테러에 대한 원인 분석 및 대응, 인질협상 등에 관한 연구도 이어졌다. 그러나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테러의 원인과 관련된 구체적인 원인규명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현재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테러위험에 대한 몇 편의 연구를 제외하고 테러환경의 변화분석 혹은 잠재적인 테러환경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테러환경의 변화에 대한 분석과 예측은 미래 테러대응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가늠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논문은 나름의 가치가 있다고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인 테러환경의 변화 분석을 위해 그 동안 출판된 관련 단행본, 논문, 정부간행물, 언론보도 자료 등을 문헌분석에 활용했으며, 잠재적 테러환경의 분석을 위해 영국과 스페인에서 발생한 두 건의 테러 사건을 이용한 사례 연구도 병행했다. 본 연구는 테러환경에 대한 계량적인 분석이 아니므로 정확한 수학적 결론의 도출은 불가능하지만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한국의 테러환경변화를 도출하고, 대응방향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II. 한국의 국제 테러 환경과 위협분석

1. 국내 출국자 증가와 관련된 환경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1961년에 내국인 출국자 수가 1만 여명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1988년 출국자유화 조치가 내려지고, 경제성장에 따른 부의 축적, 현대교통 및 통신수단의 발달로 출국자 수는 2005년에는 1천만 명을 넘어섰으며, 2006년에는 1천 1백만 명 그리고 2007년에는 1천 3백만 명을

넘어섰다. 출국자 1천만 명 시대의 개막은 여행객, 유학생, 해외진출기업체에 소속된 임직원, 그리고 해외에 거주하는 교민 수의 증가에서 기인하고 있다³⁾. 출국자 수의 급증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과 위상이 제고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동시에 한국인이 해외에서 발생하는 테러에 노출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졌음을 의미한다.(이윤규 외, 2009: 52) 실제로 해외 여행객의 증가와 기업들의 위험지역 진출확대에 따라 해외에서 발생하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테러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⁴⁾.

통역관 자격으로 이라크로 출국하여 가나무역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김선일이 2004년 5월 30일에 이라크 저항세력 ‘유일신과 성전’에 의해 납치되어, 2004년 6월 22일 이라크 북부 팔루자에서 30km 떨어진 지점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2006년에는 일본 TBS 방송 웹사이트에 “한국대사관을 폭파하겠다.”는 내용이 게재되었고(3월), 아프간 탈레반도 동의부대 및 한국인을 대상으로 폭탄테러를 하겠다고 위협(6·7월)하기도 했다. 또한 이라크 바그다드 주재 한국공관의 외교관 납치위협(6월)과 필리핀 신인민군이 한진건설 근로자를 납치하겠다고 하는 첩보(11월)가 입수되기도 했다. 이외에도 방글라데시인의 한국 지하철 테러기도(3월)와 주한 미 대사관 폭파협박(6·7월) 등 국내 외국공관이나 교통시설에 대한 테러첩보나 위협이 관계 당국에 연쇄적으로 입수된 바도 있다.(테러정보통합센터, 2007: 5)

2007년에는 아프간 주민들을 위해 의료봉사를 떠났던 한국인 23명이 탈레반에 의해 납치되어, 이 중 두 명이 목숨을 잃었고, 나머지 21명은 40여일 만에 극적으로 석방되었다. 2008년 3월에는 한국인 사업가가 필리핀 무장괴한에 의해 피랍되었다가 56만에 석방되었으며, 11월에는 인도 뭘바이 연쇄테러 당시 ‘타지마할’ 호텔에서 개최된 ‘한·인도 경제인 연합회’에 참석 중인 공관원과 기업인 등 26명이 호텔에 억류되었다가 무사히 탈출하는데 성공하기도 했다. 그리고 기업의 위험지역 진출에 따른 협박 테러도 지속되었다. 필리핀에서는 신인민군(NPA)이 수빅만 지역에 진출한 건설회사가 즉시 필리핀을 떠나라는 협박 편지를 2008년 3월에 받은 바 있다. 그리고 아프간에서는 2008년 5월에 두 차례에 걸쳐, 군인, 경찰 혹은 선교사를 보낼 경우 한국의 민간인과 외교관을 공격하겠다고 하는 협박을 받기도 했다.(테러정보통합센터, 2009: 6)

해외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자행되는 테러는 단순히 국제문제가 아니고 그 영향이 국내까지 미치고 있다. 테러조직은 해외에서 한국인에 대한 테러를 자행함으로써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한국인에게 테러의 공포라는 심리전적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한국 국민들은 심리적 공포 혹은 공황상태에 빠져들게 되고, 이는 사업상 필요한 해외 방문의 잠정적 유보 혹은 취소로 이어지면서 간접적인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다. 테러조직은 협박을 통해 물리적 테러에 버금가는 효과를 얻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해외에 진출한 혹은 진출하려는 기업들에게는 대테러보안 등에 필요한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생산적 활동을 방해하는 목적을 달성한다..(최진태, 2009: 48-53) 아울러

3) 2008년 해외여행의 주목적으로는 여가, 위락, 휴가(46.8%), 사업 및 전문 활동(30.4%), 친구 혹은 친지방문(12.3%), 교육 및 어학연수(8.5%), 종교 및 순례(1.7%), 건강 치료(0.3%)의 순으로 나타났다.
 4) 이라크·아프간 등 위험지역 25개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숫자는 2001년 662개에서 2008년에는 1천 843개로 2.8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http://www.tiic.go.kr/service/center/notice.do>, 검색일: 2010년 3월 24일)

한국인이 해외에서 테러의 대상이 되는 이유를 한국의 외교정책에서 찾고, 대외정책노선의 변경을 요구하는 반정부 국내여론이 형성되도록 하여 정부당국에게는 정치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사회적으로는 하나의 갈등요인으로 작용하도록 한다. 이것은 테러조직이 노리는 목표들이다.

2. 대테러 전쟁과 관련된 환경

전 세계적으로 볼 때 한국에 대한 테러가능성은 지속적으로 존재해 왔지만, 한국인이 직접적인 테러의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9.11 미 테러 이후 미국의 아프간에 대한 대테러보복전쟁 및 이라크전과 연관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이성수, 2009: 6-9)

아프간 전쟁은 미국이 9.11 테러의 주범인 빈 라덴과 알카에다 조직, 그리고 이를 지원한 배후세력을 응징하기 위해 ‘항구적 자유 작전(Operation Enduring Freedom)’이라는 이름으로 2001년 10월 7일 개시한 대(對)테러 전쟁이다. 한국은 아프간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2001년 9월 24일 대미지원계획을 발표하고, 국회동의 절차를 거쳐 의료지원단, 해·공군 수송지원단, 건설공병지원단을 파견하였다⁵⁾.

이라크전은 9.11 테러에 대응한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전략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미국은 9.11 테러 발생이후 안보전략의 최우선 순위를 전(全)지구적 테러조직·지원국 분쇄로 수정하였고, 이러한 안보전략의 배경 하에 대량살상무기(Warfares of Mass Destruction: WMD) 확산국가 혹은 불량국가와 테러조직의 결합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이라크 전(戰)을 개시하였다. 한국은 이라크전 발발 이후, 당시 국제사회의 동향과 대량 살상무기의 확산방지, 그리고 한·미 동맹관계의 중요성 등 제반요소를 감안하여 이라크전의 지지와 지원을 결정하였다. 한국정부의 파병은 테러위협 제거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라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참여함으로써, 세계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미국을 주축으로 한 국제연대에 동참하여 한·미동맹관계를 더욱 공고히 다져 나가기 위한 조치였다. 또한 동 전쟁의 진행과정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난민 및 포로문제, 그리고 대규모 전후복구 소요 등에 대한 인도적 구호활동과 전후 복구지원에 동참함으로써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국익증진에도 기여한다는 명분으로 파병을 했다⁶⁾.

5) 의료지원단인 동의부대는 최초 100명으로 구성하여 2002년 2월 27일 부터 키르기스스탄의 마나스기지에 주둔하여 동맹군과 현지 주민에 대한 의료지원 및 대민지원 임무를 수행하다가 2003년 2월에 전개한 3진부터는 아프가니스탄 바그람 기지(카불 북방 40km에 위치한 미군기지)로 이전하여 기존 임무를 수행했다. 해군 수송지원단은 상륙함 1척과 승무원 171명(延인원 823명)으로 구성하여 아프가니스탄에 파병한 한국군 중 가장 먼저 2001년 12월 18일 진해항을 출항하였다. 임무종료 시점인 2003년 9월 1일까지 싱가포르를 모항으로 미(美) 태평양사 작전구역 내에서 총 17회의 임무를 수행하여 5천 5백여 톤의 동맹군 물자를 해상 수송하였고 특수작전을 지원하였다. 공군 수송지원단은 김해 비행장을 모(母)기지로 하여 2001년 12월 28일 승무원 76명(延인원 446명)으로 임무를 개시한 후 임무종료 시점인 2003년 12월 31일까지 총 81회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2003년 2월 27일 의료지원단 3진과 함께 추가 파견된 건설공병지원단은 150여명으로 구성하여 아프가니스탄 재건을 위해 건설 및 토목공사, 한·미 연합 지방 재건 팀에 참여하여 대민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했다. 동의다산부대는 2007년 12월에 철수를 완료했다(<http://www.mnd.go.kr>, 검색일: 2009년 10월 15일).

아랍권에서 한국인에 대한 테러는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한 후 한국이 군을 파병한 사실이 현지에 알려진 후부터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9·11 테러 직후 아프간과 이라크 전쟁에 미국의 동맹국으로 대테러 국제공조에 참여한 한국이 반미, 반(反)서방 노선을 외치면서 대항하는 세력과 테러조직의 테러 대상으로 등장했음을 의미한다. 이를 뒷받침하는 언론의 보도도 있었다. 알카에다의 테러 대상 1순위는 미국, 영국, 호주이며, 2순위는 일본, 한국, 필리핀 순이며, 알카에다의 2인자 아이만 알 자와히리는 알자지라 위성 TV를 통해 “우리는 미국,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 한국, 호주, 일본, 폴란드의 군대가 이집트, 아라비아 반도, 예멘이나 알제리아를 침공하기 전에 지금 반격을 시작해야 한다.”고 성전을 촉구하고, “이들 나라는 모두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체첸 침공에 가담했거나 이스라엘의 생존을 도왔다. 더 이상 기다리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이슬람 국가는 하나씩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며 이라크 파병 국가를 테러대상으로 지목한 바 있다.(최진태, 2009) 이러한 과정에서 2003년 말 미국기업의 이라크 재건사업에 하청업체로 전기공사를 맡았던 오무전기 직원들에 대한 공격으로 두 명이 목숨을 잃었다. 그리고 미국이 이라크 전 종전을 선언한 후 1년이 될 무렵 김선일사건이 발생했다. 2007년에는 윤장호하사 테러사건이 발생했으며, 2009년에는 예멘에서 한국인에 대한 자살폭탄테러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2001년부터 2009년까지 한국과 한국인에 테러가 무려 30여 차례 이상이나 발생했다(테러정보통합센터, http://www.tiic.go.kr/service/info/advice.do?method=list&manage_cd=001001000, 검색일: 2010. 3. 24).

아랍권에서 발생하는 한국인에 대한 테러의 배경은 다음의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이성수, 2009). 첫째, 미국의 동맹국으로 아랍에 만연되어 있는 미국에 대한 거부감 및 반미주의 의식이 이라크 전을 계기로 한국에도 이식되었다는 점이다. 반미 혹은 반서방의 기치를 중심으로 하는 알카에다를 비롯한 아랍권의 이슬람 무장 저항 조직 혹은 테러조직에게 있어서 한국은 더 이상 아시아의 조용한 아침의 나라가 아닌 ‘아랍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분노의 대상인 미국과 손잡은 적국’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었다는 점이다. 둘째, 한국군의 파병 목적이 평화정착과 재건지원이었지만 아랍권에서는 미군과 마찬가지로 침략자인 외국군대로 보기 때문에 한국인도 미국인과 같이 그들의 공격대상이 되는데 필요 충분한 조건이 생겼다는 점이다. 셋째, 아랍지역에서 한국인에 대한 무슬림의 인식은 미국에 동조하는 서구적 세력으로 이라크 전 이후 7여 년 동안 적대적 개념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아랍지역에서 테러범들은 외국인에 대해서는 국적을 불문하고 테러의 대상으로만 인식되었을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다.

3. 기독교단체의 공격적 선교와 관련된 환경

6) 이라크전이 발발한 2003년에 의료지원단인 제마부대 185명과 건설공병 지원단인 서희부대 956명을 파견하여 이라크의 전후복구 및 인도적 구호활동에 동참하였으며, '04. 2월에 자이툰부대 파견 동의안이 제245회 국회본회의에 상정·통과되었다. 이로써 자이툰부대는 2004. 9월 최초 3,566명(서희, 제마부대 포함)이 파견된 이래 '08년까지 총 4차에 걸쳐 파견연장이 이루어졌으며, 2008년 12월에 철수했다(<http://www.mnd.go.kr>, 검색일: 2009년 10월 15일).

2007년 분당샘물교회 인질납치테러를 통해 증명되었듯이 이라크 전쟁이후 발생한 테러사건 중 일부는 이슬람권 선교에 대한 과격세력의 반발이 원인 중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 특히 긍정적으로 인식되던 의료 등의 봉사활동이 기독교의 선교활동과 맞물려 있음으로서 선교와 상관없는 일반 관광객이나 유학생들마저 테러의 대상으로 등장했다. 특히 아프간 분당샘물교회 봉사단원들의 피랍소식과 함께 한국교회의 이슬람권 선교활동이 아랍 전 지역에 알려졌고, 아랍의 각 지역에서 행해지고 있는 한국 종교단체들의 선교활동이 아랍 및 이슬람권에서 광범위한 부정적 영향을 미침으로서 한국인들은 이슬람의 정체성까지 위협하는 존재로 각인되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인의 선교활동에 대한 비난 수위가 높아졌으며, 이로 인해 일반 여행객들까지 선교활동을 위해 아랍 각지를 방문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이성수, 2009).

분당샘물교회 테러이후 한국의 기독교계는 이슬람권 해외선교에 대한 자제를 결의했지만 그 후에도 지속적인 정부의 경고, 국민적 비판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아랍권에 대한 선교를 중단하지 않았고, 오히려 가속화는 경향도 보였다. 2009년 3월 한국인에 대한 자살폭탄테러가 발생한 예멘의 시밤지역에서 2007년 7월 기독교 선교단체 소속 청소년 대표단 50여 명이 여름 캠프행사를 가졌으며, 기독교 관련 공연을 하고 성경과 십자가를 나누어주기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성수, 2009).

한국세계선교협의회가 작성한 총회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1월 기준 전 세계에 파견한 선교사 수는 2만 503명이다. 아시아에는 32개국에 11,529명(56.2%)의 선교사가 파송되었으며, 유럽에는 43개국에 1,988명이, 미주지역에는 23개국 3,124명이, 오세아니아 및 태평양지역에는 11개국 713명이 파송되어 있다. 그리고 테러 다발지역인 아프리카 및 중동지역에도 59개국에 1,907명의 선교사들이 파견되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중앙아시아를 비롯한 중동과 북아프리카 등 이슬람 국가들을 전략적 전방개척지로 설정하고 파견 선교사 수를 늘리고 있다는 점은 우려스러운 대목이다(한국세계선교사협회, 2009).

이 같은 공격적인 선교전략은 직접적인 선교활동에 대한 공격 외에도 한국과 한국인 전체에 반감을 가져올 수 있으며, 이슬람권에서 테러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아울러 전체 남녀 선교사 비율은 47 대 53으로 테러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여선교사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위기관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나 비전문가에 의존하는 교육, 대테러안전교육에 대한 콘텐츠 부족 등으로 완벽한 테러대응기법을 선교사들이 습득할 것으로 보기에 부족함이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III. 한국의 국내 테러환경과 위협요인 분석

1. 북한의 대남 테러와 관련된 환경

한국과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국내에서의 테러 가능성은 해외에서의 테러 가능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이 지금까지 지배적인 견해이다. 그 이유는 한국의 치안상태가 안정적이고, 테러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사회적 갈등수준도 낮다는 평가 때문이다. 그 동안 국내에서 발생한 테러 사건은 대부분 국제테러조직에 의한 것이 아니었고, 북한에 의해 자행된 대남테러였다.

북한은 한국전쟁 이후 적화통일 달성을 위해 오랫동안 테러전술을 사용해 왔다. 북한의 테러는 국가기관들이 직접 나서서 자행하는 국가주도형 테러(State Terrorism)라는 데 특징이 있다. 북한의 대남 테러행위는 민간항공기 납치(1958년)로 시작되었다. 1960년대에는 대남테러가 본격화되어 여러 건의 항공기 및 어선 납치를 자행하였고, 대표적인 테러사건에는 청와대 기습사건(1968년)이 있었다. 1970년대에는 박정희대통령 체제를 붕괴시키고, 한국의 성공적인 경제개발추진을 방해하기 위해서 국립묘지 폭파사건(1970년)을 포함하여 다양한 유형의 대남테러를 자행했다. 1980년대에는 한국의 외교 및 경제적 성취를 방해하기 위한 대남테러가 본격화되었다. 미얀마 아웅산묘소 폭파사건(1983년)과 김포공항 폭파사건(1986)이 북한이 1980년대에 자행한 대표적인 테러이다⁷⁾.

북한은 1987년 대한항공 858기 폭파사건 이후에는 눈에 띄는 테러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 이에 따라 2008년에 북한은 미국무부의 테러지원국명단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북한이 테러정책을 완전히 포기했다고 믿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 이유는 첫째, 김정일은 아웅산묘소 테러와 대한항공 858기 폭파 등을 주도한 인물로 아직까지 북한의 지도자로 건재한 상태이며, 그의 아들 김정운으로의 권력승계 과정에서 무차별적인 대남테러를 획책해 북한 내부의 관심을 밖으로 돌리려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둘째, 북한은 자신들이 자행한 대남테러사건에 대해서 한 번도 사과한 적이 없다는 점이다. 셋째, 북한은 국제사회에 테러노선을 완전히 포기하겠다는 선언을 발표한 적도 없다.

북한이 테러리즘을 대남 전략·전술중의 하나로 발전시켜온 이유는 다음의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최진태, 1997: 142-125). 첫째, 한미 연합군의 철저한 경계태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군사분계선을 통한 게릴라식 침투공격이나 반공의식이 투철한 남한 국민들을 대상으로 무장공비를 침투시켜 남한사회의 혼란조성이 거의 불가능함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은 정치·경제·군사적 위협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테러전술을 채택하게 되었다. 둘째, 테러는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많은 테러사건에서 증명되었듯이 배후세력이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설령 북한의 대남 테러배후가 드러난다 하더라도 북한은 남한 정부에 의한 조작사건으로 몰아붙여 위기를 모면해 왔다. 이러한 북한의 전술은 미얀마 사건과 대한항공 858기 사건에서 여실히 드러난 바 있다. 셋째, 대남 테러를 지속적으로 자행함으로써 남한은 세계 어느 지역보다도 위험한 곳으로 국제사회에 각인시켜 경제·금융·무역 등 여러 분야에서 경제적 치명타를 입힐 수 있고, 아울러 올림픽과 같은 국제행사를 방해하여 남한의 국제적 위상을 실추시킬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대남 테

7) 스위스 베른신문 기자인 무라타 노부히코(村田信彦)는 월간조선 2009년 3월호에 기고한 글을 통해 김포공항 폭발물 테러는 북한의 사주를 받은 팔레스타인 테러조직인 아부니달조직(Abu Nidal Organization)이 자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리를 통해 남한사회를 불안과 혼동 속에 빠지게 하고, 이틈을 이용해 테러범이나 불순 좌경세력들이 일각의 노동자들과 운동권 학생들을 조종하여 폭력과 혼란을 조장하여 적화통일의 기반을 만들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핵문제로 인한 6자회담이나, 경제난 해결을 위한 북한의 대남정책이나, 대일본 및 미국관계 등에서 보여준 북한의 태도는 개방의 수용과 폐쇄의 고수 사이에서 겪는 극심한 갈등과 딜레마를 여실히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기본 대남전략목표인 적화통일을 아직까지 고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체제유지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전면적인 대외개방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식량문제로 인한 내부혼란과 체제유지에 어려움이 발생하면 내적 불만을 외부로 돌리고, 체제위기전환의 한 방편으로 남한사회를 혼란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대남테러전술을 택할 가능성이 있다. 그것은 남한사회를 극도의 혼란으로 유도하여 북한주민으로 하여금 무력통일의 환상을 심어주는 것이 현재의 붕괴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방도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그들의 전략의도를 실행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전술 중의 하나가 바로 테러인 것이다(최진태, 2009: 89-99).

2. 외국인 체류 증가와 관련된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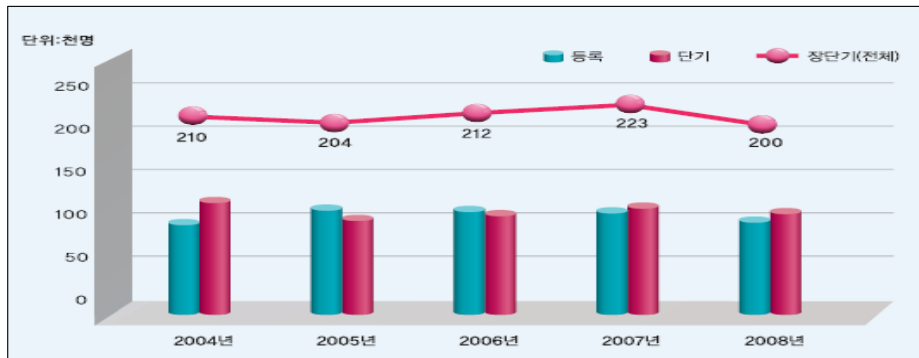
내국인 출입국자 수의 증가와 함께 외국인의 국내 출입국자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2008년도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연보에 따르면, 외국인 출입자 수를 보면 2002년에 1천만 명을 넘어선 이후 2004년에 1천 1백만 명을 넘어섰고, 2006년에는 1천 2백만 명을 넘어섰다.(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09) 외국인의 출입국자 수가 이처럼 증가하는 이유는 전 세계에 불고 있는 한류 열풍에 따른 단순 여행객의 증가, 유학생 수의 증가뿐만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 수의 국내유입이 또 다른 요소가 되고 있다. ‘한강의 기적’으로 지칭되는 경이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한 국가, 서울올림픽(1988년), 월드컵(2002년) 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통해 그 위상을 세계에 알린 국가, 인력난은 가중되지만 고학력의 영향으로 3D 업종에 취업하기를 기피하는 사회적 분위기 그리고 남아선호사상에 따른 성비의 불균등으로 인한 농촌 총각들의 결혼 곤란 등 한국의 경제·사회적 요인들이 변수가 되어 수많은 외국인 노동자들과 외국인 여성들의 한국으로의 유입이 증가하게 되었다.

국내 외국인 노동자들은 외국인 고용허가제 실시와 함께 본격적으로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1987년, 6,000여 명에 불과하던 외국인 노동자들의 숫자는 급격하게 증가하여 현재 대략 35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09) 문제는 이들 외국인 노동자들 대부분이 단기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비자가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귀국을 하지 않고 불법체류자의 신분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불법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크게 등록 외국인 그리고 단기 체류자의 불법체류로 구분할 수 있다. 2008년도 등록외국인중 불법체류자는 93,461명으로 2007년의 107,278명보다 13,817명(12.9%) 감소하였으며, 등록외국인의 감소세와 비교하면 등록외국인중 불법체류 외국인수는 상당수 감소하였음을 보여

준다. 이는 2003년 8월 이후 합법화 조치된 자의 불법체류자 전략이 크게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4년 8월 이후 실시된 강력한 정부합동 단속활동 및 동포 불법체류자의 자진 귀국 프로그램에 기인한 바 크다. 등록외국인이 증가하고 불법체류자 수가 감소함으로써 등록외국인중 불법체류자의 수가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불법체류자 비율이 10.9%에 달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것이다(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09: 732).

<표 1> 불법 체류 외국인 현황(2004-2008)



자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09).

2008년도 단기 불법체류외국인은 106,486명으로 2007년에 비해 114,295명보다 7,809명(6.8%) 감소하였는데 이는 국내 경기침체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불법체류자의 자진출국 증가, 2008년 8월에 불법체류자 감소 단계별 계획을 수립하여 공·항만에서의 입국목적 불(不)분명 자에 대한 입국심사 강화가 원인인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불법체류 다발국가인 방글라데시와 사증면제협정을 일시 중단한 것도 일부원인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불법체류자의 체류기간이 2년 이상으로 장기불법체류자 비율이 높다. 2008년도 단기불법체류외국인 106,486명 중 30일 이내가 1,280명(1.2%), 30일 초과 60일 이내가 1,905명(1.8%), 60일 초과 90일 이내가 1,863명(1.7%)으로 90일 이하의 단기체류자격 소지 불법체류외국인은 5,048명으로 4.7%를 차지하고 있다. 90일 초과 1년 이내가 4,892명(4.6%), 1년 초과 2년 이내가 23,709명(22.3%), 체류기간 2년 초과는 72,837명(68.4%)을 차지하고 있다(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09: 733-734).

국제결혼의 건수와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 1990년에 4,700건에 불과하던 것이 1997년에는 12,448건, 그리고 2007년에는 43,121건으로 증가했다. 이를 한국의 총 결혼건수와 비교해 본다면 1990년에 국제결혼이 차지했던 비율이 3.2%이던 것이 2004년에는 11.4%로 증가했다(강휘원, 2006: 19). 2005년의 통계를 살펴보면, 한국에서의 총 결혼건수는 316,375건이었고, 그 중 국제결혼이 43,121건을 차지함으로써 그 비율은 무려 13.6%에 달했다. 한국여자와 외국인 남자와의 결혼은 11,941건이었고, 한국 남자와 외국인 여자의 결혼은 이의 3배 가까운 31,180건이었다.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 그리고 국제결혼의 증가가 한국 사회에 던져주는 함의는 무엇일까? 산업현장

에서는 인력이 부족하지만 청년층의 실업률이 높은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이유는 고학력 국내 인력이 3D 업종을 기피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산업현장의 노동력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은 당분간 증가할 수밖에 없다. 물론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은 한국 정부의 노동정책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인 노동자의 전면금지에는 한국의 노동시장 환경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므로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은 계속될 것이다. 따라서 한국사회가 전체 인구의 1%를 차지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외국인 노동자들을 단순히 생산의 도구로만 볼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이들을 한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인정하고 포용하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함을 의미한다.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 증가는 한국의 결혼률 감소 그리고 낮은 출산 문제와도 연관이 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의 높은 교육비와 생활비, 사회적 보육망의 미비, 맞벌이 가족을 위한 사회적 지원 부족 등의 이유로 결혼을 포기하는 젊은이들도 늘어나고 있다(한겨레신문, 2007년 2월 2일).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의 출산을 미루거나 1가정 1인 자녀 추세가 확산되고 있다. 이는 결국 한국을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과 최단시간 내에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이라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한국의 인구는 줄어들 것이고 절대적 노동력 부족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의 필요성은 더욱 증대될 것이다. 국가 간의 노동 경계선이 허물어져 이러한 새로운 노동시장환경은 전 세계적인 추세이며,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수도 더욱 증가하게 될 것이다(홍원표, 2006: 92).

결혼하는 부부 10쌍 중 1명 이상이 국제결혼을 하고 있다. 농촌 총각이 결혼이민을 희망하는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기도 하고, 한국여성이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인과 결혼을 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국제결혼이 전체 결혼의 13%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한국이 단일민족을 넘어서 다인종·다민족 구성사회가 되어 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국제결혼을 통해 가정을 꾸미면서 국내에서 태어난 2세들도 증가하고 있다. 2008년 행전 안전부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이들의 수자가 14만 명을 넘어섰다. 문제는 한국사회의 새로운 구성원이 되고 있는 국제결혼의 배우자들과 2세 자녀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사회적 갈등의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것이다(강휘원, 2006: 6).

한국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겪는 고충의 유형은 다양하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으로는 상대적으로 높은 노동시간(61.1%), 저임금(46.7%), 폭행 및 괴롭힘(22.8%), 임금체불(20.6%), 노동현장의 열악한 환경(20.1%), 한국인 노동자와 비교되는 차별(18.9%), 비인간적인 폭언 및 모욕(17.9%), 산업재해 및 직업병(15.3%), 한국인 노동자와의 갈등(14.9%)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설동훈, 2002: 269-270). 외국인 노동자들이 직면하는 고충 중에서도 이들이 분노의 표출이라는 극단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은 비인간적인 폭행, 폭언 및 모욕 등이다. 한국에서 노동에 종사하는 외국인들이 요구하는 것들은 미납 월급의 지급, 이유 없는 구타 금지, 노예 같은 부당한 취급의 개선, 인간적인 대우, 충분한 휴식 요구 등 대부분 인권과 관련된 문제들의 해결이다(김운규, 2005: 243).

문화적 차이, 생각하는 사고의 차이 등으로 인해 국제결혼이 실패로 끝나는 등 국제결혼 자체가 야기하는 문제도 많지만 국제결혼가정의 2세 자녀들에 대한 문제도 심각하다. 대구 이주 여성인권상담

소가 2006년 이주 여성들과 상담한 결과는 한국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국제결혼을 한 이민 여성 50명 가운데 절반가량이 임신상태에서 구타당하고 이를 피해 달아나면서 불법 체류자가 되거나, 또는 비정상적인 노동력을 착취당한 것으로 나타났던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또한 2006년 결혼이민여성의 이혼도 2,444건으로 2004년과 비교해보면 무려 51.7%가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연합뉴스, 2006. 11.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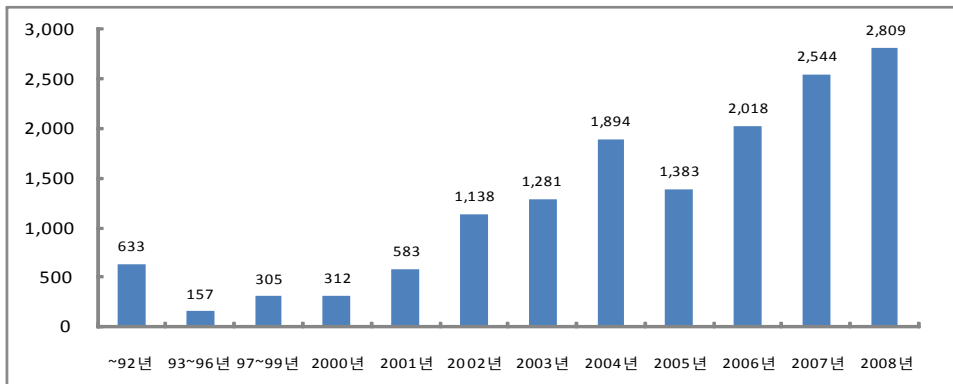
국제결혼가정의 자녀들에 대한 편견과 이들에 대한 놀림도 심각한 수준이다. 한국 남성과 결혼한 이주 여성들의 경우 한국어 구사능력이 떨어지고, 이에 따라 2세들의 한국어 구사능력도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학교생활에 지장을 받기도 한다. 또한 여타의 한국인들과 다른 피부색 때문에 친구들로부터 놀림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같은 국제결혼가정의 자녀들이라도 경제상황이 뛰어나거나 선진국 출신의 백인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영어 등 외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는 2세와, 동남아시아 등 저개발국가 출신의 어머니를 둔 2세에 대한 한국 사회의 차별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외국인의 국내유입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나타나는 다양한 형태의 차별은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원인으로 발전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갈등이 심화될 경우 극단적인 테러의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는 한국의 새로운 테러 환경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3. 북한 이탈 주민 국내 입국 증가에 따른 환경

북한 이탈 주민의 국내입국 현황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아래의 <표 2>가 보여주듯이 1999년 이전까지 이들 입국자 수가 수십 명 단위 수준으로 탈북 자체가 국내 언론의 집중적인 관심을 끌기도 했다. 그러나 1999년 이후에는 백 명 단위, 그리고 2002년 이후에는 천 명 단위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2006년에는 처음으로 2천명 수준을 넘어섰고, 2008년에는 2천 8백 명을 넘어섰다.

<표 2> 북한 이탈 주민 입국 현황



자료: 통계청, 검색일-2010년 2월 10일.

2000년부터 2004년 6월 까지 북한에서 탈출하여 한국으로 입국한 4,075명의 탈북 동기를 살펴보면, 생활고가 2,263명으로 전체의 56.5%를 차지하였으며, 북한에서 당을 비판하거나 범죄행위로 인해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느껴 탈출한 인원이 356명으로 15.7%를 차지하였다. 또한 북한체제에 불만을 품고 탈출한 인원은 367명으로 16.2%였다(양무목, 2004: 16-17). 탈북의 동기가 무엇이든 탈북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북한의 경제난, 식량난, 그리고 에너지난이 지속되는 한 북한의 탈북자는 계속될 것이다. 또한 김정일 체제에 불만이 지속되는 한 탈북자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북한을 탈출한 새터민이 한국사회에 적응하는데 겪는 어려움은 기초지식과 정보의 부재로 인한 곤란, 언어 이질화 문제, 생활 및 사고방식의 차이, 문화적 차이로 인한 부적응, 남한 주민들 대비 경제적 빈곤감, 남한 주민들의 무관심, 전문지식 부족으로 인한 열등감 등이다. 이에 따라 새터민들의 연간 소득은 1,400만원 내외로 남한 근로자의 2,780만원에 비해 절반도 되지 않으며, 실업률도 28%로 한국의 공식 실업률은 3.5%와 비교할 때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북한 이탈주민 자녀들의 고등학교 취학률도 6.6%로 2003년 기준으로 한국의 99.3%와 비교할 때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조선일보, 2007.2.20.).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은 위에서 제시한 여러 이유로 인해 한국의 자본주의 사회에 적응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수다. 그리고 이들 중 20세 이하의 상당수가 무학자 또는 학교 중퇴자이고, 북한을 떠난 이후 제3국 체류기간이 장기화되면서 학력 결손이 심했기 때문에 학습능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동정심과 호기심, 그리고 의심과 불신이 혼재된 감정으로 그들을 대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아울러 북한 이탈 출신의 학생들에게 북한말을 억지로 시키거나 따돌리는 행위 등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양무목, 2006).

한국사회가 같은 민족인 북한 이탈 주민들을 포용하지 못하고, 감싸주지 못한다면 이들은 한국사회로부터 소외될 수밖에 없다.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한 동포들이 남한에서도 고통을 당하고 소박한 꿈을 달성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면 좌절할 수밖에 없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해외에서 느끼는 고통과 같은 민족인 이들이 느끼는 고통은 감정적인 차원에서 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따라 이들의 불만이 고조될 경우 테러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될 가능성도 결코 배제할 수 없다.

IV. 한국의 국내외 테러 환경 변화 전망

전통적으로 한국에 가장 위협적인 테러환경은 남북대치에 따른 북한에 의한 대남 테러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북한에 의한 대남 테러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다양한 테러환경에 직면하고 있다. 첫째, 지리적 구분과 공격대상에 대한 제한도 없는 테러의 시대에 한국인 역시 누구나 테러에 노출될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 하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둘째, 국제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른 파병 등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책임이 증대되면서 반감을 가진 세력이 한국을 그들의 테러대상으로 간주하는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것이다. 셋째, 종교단체의 공격적인 해외 선교활동의 전개에 따라 이슬람권의 반발이 증가하면서 타 종교에 대한 배타주의적 테러환경이 조성되었다는 것이다.

북한의 대남테러라는 전통적 테러환경이외에 한국을 둘러싼 새로운 테러환경이 등장한 것은 9.11 테러와 아프간에 대한 대테러전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한국은 탈냉전 이후 최대 위협으로 등장한 테러와 전쟁에 대테러 국제공조의 일환으로 아프간과 이라크에 병력을 파병하였다. 비록 한국의 파병이 전투 목적은 아니었지만 이슬람원리주의 세력들에게 한국군은 점령군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이슬람과격원리주의 테러조직은 조직적인 저항에 나서기 시작했다. 아프간에서 발생한 분당샘물교회 봉사단원들에 대한 인질납치테러도 이러한 연장선에서 발생한 테러였다. 분당샘물교회 테러사건의 해결과정에서 예정된 철군 로드맵에 따라 철군이 약속되고, 군의 철수가 완료되면서 테러위협은 상당부분 완화되었다.

그러나 아프간에 대한 재건지원을 위해 재(再)파병을 결정하면서 새로운 테러 위협에 직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되었다. 한국은 2009년 10월 30일 유엔안보리 결의와 아프간 정부의 요청에 따라 아프간의 재건 및 복구 지원을 목적으로 파견되는 한국의 지방재건팀(Provincial Reconstruction Team: PRT)을 보호하기 위해 국군부대를 아프간 파르완(Parwan)주에 파견하기로 결정했고, 2009년 12월 8일 제52회 국무회의에서 ‘국군의 아프간 파견 동의안’을 심의·의결했으며, 2010년 2월 25일 국회에서 파병 동의안이 처리되었다(연합뉴스, 2010년 2월 25일, 검색일: 2010년 3월 25일). 한국의 아프간 재파병 결정 직후 탈레반은 이메일로 배포한 성명에서 2007년 한국인 봉사단원 인질납치 때 인질을 풀어준 사실을 언급하면서 “당시 한국은 아프간에서 군대를 철수하고 다시는 파병하지 않기로 약속했는데 이 약속을 깨고 군대를 보낸다면 나쁜 결말을 준비해야 한다.”고 협박을 했다(세계일보, 2009년 12월 10일). 따라서 아프간 재파병과 관련된 테러위협은 새로운 테러환경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국제안보환경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낮지만, 과거에는 없었던 새로운 테러환경의 등장가능성도 전망된다. 그것은 국제화의 진전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 국제결혼 이민자, 북한 이탈 주민들의 증가에 따른 새로운 사회적 갈등과 이에 따른 테러환경의 등장이다.

2004년 3월 11일에 발생한 스페인 열차 테러⁸⁾와 2005년 7월 7일에 발생한 런던 지하철 테러⁹⁾는 시사하는 바는 크다고 볼 수 있다. 스페인 열차 테러와 런던 지하철 테러의 주된 특징은 국제테러조직에 의한 직접적인 테러가 아니라 자생적 테러범에 의해 테러였다는 것이다. 스페인 열차 테러의 경우 테러 자행 핵심 인물이 모로코계로 스페인 국적을 가지고 있었다. 테러의 주범인 자말 주감(Jamal Zougam)이 아프간의 알카에다 캠프에서 훈련을 받은 바 있고, 또 유럽의 알카에다 조직원이었다고

8) 스페인 총선거를 3일 앞둔 2004년 3월 11일 오전 6시 39분, 스페인 마드리드 남부 아토차 역의 4개의 교외선 통근열차에서 10개의 폭발물이 연쇄적으로 폭발하여 190여 명이 사망하고 2,000여명이 부상당한 테러사건으로 스페인 판 9.11로 지칭되기도 한다.

9) 영국의 2012년 올림픽 유치 결정과 스코틀랜드 글렌 이글스(Glen Eagles)에서 서방선진국회의(G8)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2005년 7월 7일 오전 아침 출근시간에 지하철과 버스를 대상으로 한 연쇄적인 폭탄테러가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60여 명이 사망하고, 700여 명이 부상을 당했다.

하더라도, 문제는 그가 스페인 국적으로 스페인 국민을 향해 테러를 가했다는 점이다. 런던 지하철 테러 역시 영국에서 태어나고 성장했던 이슬람 계 영국인이 자행한 자생적 자살폭탄테러였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테러범들은 테러자행 전까지에는 범죄경력이 전혀 없는 평범한 영국시민이었다¹⁰).

두 사건은 국제적 테러조직이 아니라 자국민이 테러의 주체가 되어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무자비한 테러를 자행할 수도 있다는 교훈을 남겼다. 테러범이나 테러가담자들이 대부분 이민 세대들이고,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피부 색깔과 종교 면에서 정통 유럽인들과 다를 뿐이었다. 그러나 이들 테러범들이나 테러 가담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공통된 인식은 이민 후속세대로서 직간접적으로 받았던 차별과 좌절일 개연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과격한 이슬람원리주의에 심취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기대와 실제 간의 괴리" 또는 "가치 기대와 가치 능력간의 차이"의 인식에서 발생하는 상대적 박탈감(Relative Deprivation) 또는 좌절감(Frustration) 때문에 발생하는 사회 심리적 요인이 이들을 테러범으로 몰고 간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Gurr, 1970: 18). 즉 그들이 당연히 누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상적인 삶의 제 조건과 실제로 그들이 향유하는 현실적 조건 간의 격차로 인해 좌절하고 박탈감을 느끼면서 결국은 사회적 긴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게 된 것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외국인 노동자 그리고 결혼이민자들의 유입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한국사회에서 차별을 받고, 꿈을 잃고 좌절하게 된다면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극단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다. 실제로 불법체류자 단속과정에서 외국인 노동자들과 이들을 후원하는 세력들이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폭력을 동원하면서 공권력에 도전하는 하는 등 이주 노동자와 내국인이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 집단적으로 자기 의사를 표출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시사적이다(경기일보, 2009년 11월 5일). 불법체류를 하다가 체포되고, 강제 출국을 당했거나 차별대우를 받았다고 느끼는 외국인 노동자 출신들이 반한 단체를 결성하고, 테러협박을 한 사례도 있었다. 그 대표적인 사례는 태국에서 결성된 아키아(Anti Korea Interest Agency: AKIA)이다. 이 조직은 태국 주재 한국 대사관을 포함한 주요 기관과 국적 항공기 등을 겨냥해 테러공격을 하겠다는 협박편지(2004.1.8)를 보냈고, 구체적인 테러공격 일자가 명시된 편지(2004.1.16)도 보냈다(조선일보, 2004년 1월 17일).

북한을 이탈한 주민들의 국내 유입 증가와 함께 등장하기 시작한 문제와 이로 인한 갈등도 새로운 테러환경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다. 새로운 체제에 대한 적응 실패와 남북 간에 존재하는 불가피한 인식의 차이, 그리고 경제적 측면의 연착륙 실패 등으로 인한 갈등적 요소들은 이미 나타나기 시작했다. 2005년에 발생한 탈북자 손 모씨의 국회 차량 돌진 사건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동년 2월 23일 오후 11시29분께 국회 정문을 향해 탈북자 손 모(41)씨가 시속 40~50km의 속도로 승용차를 몰고 돌진한 사건이 발생했다. 손 모씨는 국회 정문의 입구와 출구 가운데 바리케이드가 세워진 입구를 택하지 않고 장애물이 없는 출구를 통해 국회 안으로 역(逆)진입을 했다. 당시 정문에 경비인원 2명이 있었지만 심야 시간에 갑자기 차량이 들이닥친 데다 워낙 속도가 빨라 국회 진입을 제지하지 못했다. 손 모씨

10) 런던 테러범 중에 모하메드 시디크 칸(30)은 빈민층 이민 자녀와 장애아를 돕는 초등학교 보조교사였으며, 세흐자드 탄위어(22)는 성공한 이민가정의 2세였다. 이슬람계이긴 해도 런던시민으로 평범하게 살아왔던 이웃이 테러조직에 포섭돼 짧은 시간에 테러범으로 돌변한 것이었다.

는 휘발유 20리터를 차에 싣고 와 일부를 몸에 뿌린 뒤 라이터를 들고 경찰과 대치하다가 결국 경찰에 연행됐다. 이 사건은 탈북자에 대한 정부의 정책에 불만을 품고 자행된 것으로 밝혀졌다.(동아일보, 2005.2.24) 한국은 유럽 남북 대치라는 특수한 환경이 작동하고 있다. 노무현의 참여정부가 출범하고 2006년 12월까지 검거된 간첩은 총 17명이었으며, 그 중에는 탈북자 새터민 간첩도 있었다. 특히, 새터민 간첩은 탈북자로 위장 귀순한 뒤 1년 3개월 동안 국내에서 간첩으로 활동한 것으로 밝혀졌다.¹¹⁾

만약 불만을 가진 외국인 노동자가 알카에다를 포함한 과격 이슬람원리주의 테러조직과 연계될 경우, 그리고 탈북 새터민이 남한 정착에 실패하고 좌절하면서 북한의 배후 조종을 받을 경우, 한국의 테러환경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영국, 스페인, 프랑스 등 유럽의 이민 2세대처럼, 한국의 외국인 근로자와 자녀들, 그리고 새터민들이 한국사회로부터 차별을 받아 고통과 좌절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한국의 주류 계층에 진입하지 못한 외국인 노동자, 국제결혼가정 출신의 2세 등에 대한 폭언, 폭행, 임금 체불, 무시, 왕따 등의 차별을 지속한다면 이들의 좌절감이 한국인을 분노의 대상으로 삼아 국가 혹은 사회 증오형 테러를 일으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한국사회를 혼란 속으로 몰아가려는 불순세력이 이들의 불만을 역이용하여 자신들의 목적달성 수단으로 활용한다면 테러가 한국사회의 불안정화를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V. 결론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세계 각국은 테러에 대한 대비책 마련을 국가 안보의 화두로 삼고 있다. 테러대응시스템구축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기도 하고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영국 등 일부 국가들은 자국 내에서 오래 전부터 암약하던 테러조직을 소탕하기 위한 군사작전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앞으로 테러리스트들이 설 땅이 점차 좁아질 것이라는 견해를 제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테러가 단기간 내에 지구상에서 소멸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전문가는 단 한사람도 없다. 그 이유는 테러환경 변화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바탕으로 테러의 진화를 앞서는 대책들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테러위협이 상당기간 동안 지속될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실정이다.

9.11 미 테러 이후 대테러 전쟁이 시작되면서 한국에 대한 테러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 동안 한국과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테러는 아프간, 이라크, 인도네시아 등 아랍과 이슬람권 등 주로 해외에서 발생했다. 이처럼 한국이 해외에서 테러의 대상으로 등장한 배경에는 아프간과 이라크에 대한 대테러 전쟁에 한국군이 파견되고, 기독교 단체의 공격적인 선교활동과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해외에서 발생하는 테러의 예방을 위해서는 군의 해외 파병 등과 관련된 한국의 대외정책에 있어서

11) 조선일보가 2006년 12월 12일자 보도한 “간첩 많은데 안 잡았다”라는 기사와 관련하여 국가정보원이 해명한 국정브리핑 내용 참고.

보다 신중하고, 체계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아프간 인질 테러 당시 탈레반이 요구했던 첫 번째 사항이 한국군의 철수였으며, 재파병 시 한국은 테러의 대상이 될 것임을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해외파병이 필요할 경우 군은 대테러작전에 대한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장병에 대한 대테러위기관리 등에 대한 교육 및 훈련도 필요하다. 종교단체는 공격적이고 일방주의적인 선교활동을 자제하고, 선교 활동에 앞서 현지 문화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뒤 따라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선교활동을 떠나는 사람들이 테러에 노출되지 않는 기법, 테러에 노출되었을 경우 생존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기법 등에 대한 철저한 교육도 필요할 것이다.

국내의 테러 환경은 그 동안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국내도 테러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 공통된 지적이다. 특히 전통적으로 존재해왔던 북한의 대남 테러위협 뿐만 아니라 국제화의 역기능에 따른 새로운 테러주체의 등장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국내 테러 환경에 대한 변화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국제교류의 증가에 따라 결혼이민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외국인 노동자들의 입국도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제 한국도 단일민족국가에서 다문화, 다민족 구성국가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에서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갈등요소가 등장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테러의 국가 혹은 사회 증오형 테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국내에서의 테러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외국인 노동자의 체계적 관리의 물론 임금체불, 인종차별 등에 대한 법적 처벌을 강화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에 대한 보완이 요구되며, 다문화 가정과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의 변화와 함께 정부의 지원 정책 등도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테러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이다. 테러의 예방에 있어서 최선의 방법은 테러의 발생 원인으로 작용하는 환경 자체를 제거하는 것이다. 그러나 테러환경 자체를 제거하는 것은 장기적인 정책적 접근을 요구하는 사항이다. 따라서 단기적인 접근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새로운 테러 환경이 등장하지 못하도록 테러환경 변화에 대한 냉정한 검토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한국 사회가 이런 노력을 게을리 한다면 국내의 테러 환경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비용도 커질 수밖에 없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강휘원. 2006. 한국 다문화사회의 형성 요인과 통합 정책. 국가정책연구. 20(2): 5-33.
- 김열수. 2007. 한국에서의 새로운 테러주체의 등장 가능성. 한국위기관리논집. 3(1): 1-12.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09. 2008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연보.
- 설동훈. 2002. 외국인 노동자와 한국사회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설동훈. 2001. 한국의 외국인노동자 인권 실태와 대책. 인권과 평화. 2(1): 53-87.

- 양무목. 2004.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연구. 통일논총. 3.
- 이경희·배성우. 2006. 북한이탈주민 남한사회 정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통일정책연구. 15(2). 1-28
- 이성수. 2009. 정치·종교적 관점에서 본 아랍(중동)권의 한국인 테러행태 분석: 9.11 테러 이후를 중심으로. 중동 및 지중해 지역의 대한민국인 테러 예방과 전망. 한국이슬람학회(KAIS) 2009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5-21
- 이윤규 외. 2009. 첨단 IT 기술을 활용한 대테러 작전 발전방안. 서울: 육군협회 지상군연구소.
- 최진태. 1997. 테러, 테러리스트 & 테러리즘. 서울: 대영문화사
- 최진태. 2006. 테러리즘의 이론과 실제. 서울: 대영문화사
- 최진태. 2009. 테러시대의 안전 및 생존 전략. 서울: 글마당
- 테러정보통합센터. 2009. 국제테러정세: 2008.
- 테러정보통합센터. 2007. 국제테러정세: 2006.
- 한국세계선교협의회. 2009. 2008 파송현황-총회 보고. 서울: 한국세계선교협의회.
- 홍원표. 2006.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정책 변화와 과제. 민족연구. 28: 87-126
- Gurr, Ted R. 1970. *Why Men Rebel?*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崔鎮泰: 영국 St. Andrews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는 한국테러리즘소장과 한양대겸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국가대테러협상전문위원, 대테러정책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주 연구 분야는 대테러보안, 위기관리, 군사전략, 경호·경비 등이다. 주요 저서로는 테러리즘의 이론과 실제(2006), 알카에다와 국제테러조직(2006), 테러시대의 안전 및 생존전략(2009), 국가안보와 대(對)테러전략(2009) 등이 있다(happykorean@yahoo.co.kr).

투 고 일: 2010년 1월 13일
 게재확정일: 2010년 2월 3일